



상악구치부 상실 환자의 국소의치를 이용한 수복-몇 가지 인상채득 방법의 비교

이수영*, 객재영, 허성주, 김성균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부분 무치악에 대한 인상을 채득할 때는 치아와 인접조직의 해부학적 형태를 정확히 인기해야만, 정확한 삽입로를 가진 국소의치를 설계할 수 있고, 지대치에서 지지와 유지를 제대로 얻을 수 있다.

부분 무치악 환자의 가철성 보철치료가 어렵고 치료 결과의 만족도나 예후에 문제를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는 두 개의 지지 조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나는 치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잔존치조제이다.

잔존치조제는 두가지 형태, 즉 해부형과 기능형으로 인상을 채득할 수 있다. 해부형인상이란 일단계 인상으로 부분 무치악의 다양한 지지구조사이의 기능적 관계를 나타내지 않고, 단지 안정상태의 경조직과 연조직을 한번에 알지네이트 인상재와 같은 탄성 인상재를 이용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잔존 치조제의 기능형 인상은 잔존치조제의 어떤 특정한 부위는 다른 부위보다 더 잘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차 하중 부담 부위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지도록 하고 부하를

수용하지 못하는 부위에는 압력이 덜 가해지도록 인상을 채득한다. 이것은 기능 부하를 받을 때의 치조제표면으로, 해부형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잔존치조제를 덮고 있는 연조직의 두께와 구조적인 성질에 따라 환자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치아부분은 일차인상으로 채득한 것을 그대로 이용하지만 조직 부분은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한 이차 인상을 이용하여 기능할 때와 유사한 조직의 형태를 한 번 더 기록한다.

이차 인상을 통해 개조모형을 만드는 방법은 하악의 후방 연장 증례(Kennedy Class I 및 II)에 흔히 이용된다. 이런 방법은 같은 상악 Kennedy class I 및 II 증례의 상악에서는 이용하지 않는데, 이는 상악의 점막이 단단하여 좀처럼 변위되지 않기 때문에 이차 인상을 채득하면서 오히려 레스트의 적합도가 떨어지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본 증례에서는 상악 구치부 상실환자의 국소의치 제작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인상채득 방법을 이용한 국소의치를 제작하여 변연 연장, 내면 적합도, 환자 만족도 등을 비교하였다.